

20세기 전환기 중국 평화담론 연구*

— “세계평화회의”를 중심으로

차태근**

<목 차>

1. 서론
2. 《만국공보》와 구미의 평화회의
3. 헤이그 만국평화회의담과 평화담론의 분기
4. 평화회의와 중국의 평화담론
 - 4.1 이념으로서의 평화와 대동 세계
 - 4.2 세계평화와 주권 불평등
5. 결론

1. 서론

칸트에 의하면 평화란 인간이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전쟁과 갈등을 거쳐서 점진적으로 다가온다. 인간은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기적이기 때문에 평화를 보장할 법을 수용하게 된다.¹⁾ 칸트의 이러한 주장은 그의 철학적 논리에 기인한 것이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수세기 동안 전례 없는 전쟁 상황을 겪던 유럽의 경험에 기반한 것이기도 하다. 또 19세기에 구미지역을 중심으로 평화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실천을 위한 행동이 계속해서 표출된 데에는 인류에 대한 종교적인 관심도 중요한 작용을 했지만, 연이은 인명과

* 본 연구는 2017년 인하대학교 교내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인하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1) 임마누엘 칸트 지음, 이한구 옮김, 《영구평화론》(서광사, 2017), 52-56쪽.

문명에 대한 파멸과 위협도 중요한 추동적인 계기였다. 특히 19세기 중반 이후 무기기술의 발전으로 전쟁의 양상이 바뀌면서 전유럽 또는 전지구적인 대량학살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었다.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는, 비록 유럽에서는 보기 드문 평화시기였지만, 동아시아는 연이은 전쟁과 위협으로 국가와 인종의 안위가 전혀 없이 위기에 처했던 시기였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는 주로 자신이 전쟁의 적극적인 한 주체로서 참여하는 경쟁적인 위기상황이라기 보다는 타국에 의한 일방적인 위협과 도발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상시적인 전쟁의 위기에 놓여있던 그 시기는 바로 칸트가 말하는 평화에의 관심이 대두될 수 있는 유리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칸트가 말하는 인류평화는 전쟁과 평화에 대한 주도권을 장악한 경쟁하는 주체들 사이에서 평화에 대한 필요성이 절감되었을 때 가능하다. 후에 20세기 초 1차 유럽대전에서 보여주듯이 유럽의 열강은 바로 그러한 상황에 접근해 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는, 비록 점차 아중심적인 지위를 점해가던 일본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평화를 제기할 수 있는 대등한 경쟁적 위치나 주도권을 가지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아시아에서 평화문제를 중요한 사상적 의제로 삼기는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동아시아의 지식인들에서 있어서 평화론은 중요한 관심 주제가운데 하나였다. 당시 주요 사상가나 계몽활동가들 가운데 평화와 관련된 문장을 발표하지 않은 인물이 드물 정도로 평화와 관련된 논의에 참석하거나 관련 뉴스가 각종 매체의 지면을 통해 확산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세기 전환기에 중국에서 평화담론이 형성되는 과정을 통해 그 성격을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19세기 말에 대두된 세계평화회의를 계기로, 평화관념 및 평화실현을 위한 방법에 관한 담론이 중국의 사상분화와 어떻게 결부되어 특정한 사상지형을 형성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2. 《만국공보》와 구미의 평화회의

인류사회의 역사해석이나 이념을 논하는 사상에 있어서 평화는 주요 문제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평화에 대한 관념이 한 사회의 현실적 문제나 사상적 문제를 설명함에 있어 주요한 키워드로 부각되었다면, 그것은 평화가 그 시대에 매우 중요하고 긴박하게 요구되는 문제로 인식되었다는 것을 반증한다. 따라서 평화담론은 평화적인 시기보다는 이른바 평화의 위기시기에 그 문제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인식했던 인물들에 의해 우선 주목받을 것이다.

중국의 경우를 보자면, 평화와 관련된 담론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은 1890년을 전후한 시기였다. 이 시기를 보면 중국은 태평천국과 옴군(捻軍)의 난을 진압하고, 대외적으로도 프랑스와의 전쟁이 끝난 이후 5년여 동안 특별한 전쟁이나 직접적인 위기상황이 없던 상대적으로 “평화”의 시기였다. 하지만 서구와의 몇 차례 전쟁을 통해 캉유웨이 등 일부 지식인들은 중국 및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재편과 중국의 위기를 심각하게 인식하기 시작하던 시기기도 했다. 그런 가운데 먼저 평화의 문제를 제기한 것은 바로 서구 선교사들이 중심이 된 광학회의 기관지로서 1889년 새롭게 재편하여 복간된 《만국공보(萬國公報)》였다. 《만국공보》는 복간하고 나서 바로 제2책에 <전쟁종식 방법을 논함(論弭兵息戰之策)>을 게재하였는데, 필자가 파악한 바로는 이는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널리 유행한 “미병(弭兵)”론을 처음으로 제기한 문장이었다. 이 문장에서 일반적으로 군사적 무력경쟁의 중지나 전쟁종식을 의미하는 “미병(弭兵)”, “미전(弭戰)”이라는 개념을 사용한 것은 단순히 한자의 어의적인 조합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²⁾ 이는 춘추시대의 역사적인 “미병(弭兵)”에 관련된

2) 중국 문헌에서 “전쟁을 중지시키다”, “무기를 없애다”, “군사를 감축하다” 등을 나타내기 위해 자주 사용된 어휘는 “미병(弭兵)” 이외에도 “소병(銷兵)”이나 “소병(消兵)”, “식병(息兵)” 등이 있었다. 그러나 근대시기 다국적인 협상과 균제(均齊)를 통해 평화체제를 구축한다는 의미에 적합한 것은 바로 “미병(弭兵)”이었다.

전고를 의식한 것으로, 그 전고만으로도 이미 문장의 전체 의미와 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였다.³⁾

이 글은 인명과 경제 등 측면에서 전쟁의 폐해를 지적하고, 특히 19세기 중반 이후 전쟁무기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인명의 대량살상과 상비군의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군비경쟁의 중지와 분쟁해결을 위해 여러 대국들이 참여하는 맹약의 체결을 주장하였다.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전쟁의 문제는 유럽은 물론이고 중국의 미래운명에 있어서 관건적이라고 평가하고, 중국 황제가 나서서 서구 열강과 새롭게 맹약을 체결할 것과, “군사 감축과 전쟁 종식(弭兵息戰)”의 방법에 대한 협상 결과를 만국공법에 명시하고 이를 준수토록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이다.⁴⁾

이러한 제안은 1899년 헤이그 만국평화회담⁵⁾의 주요 의제와 거의 차이가 없다. 그 이유는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가 발의한 1899년 만국평화회담이 돌발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서구 사회와 정치에서 주요문제로 논의되고 주장되고 있었으며, <전쟁종식 방법을 논함> 역시 그러한 서구의 평화담론의 틀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담론의 맥락과 연관이 있겠지만, “미병”은 헤이그 만국평화회담을 거치면서 20세기 초 핵심적인 평화담론을 구성하게 된다.

그럼 왜 익명의 중국인 필자가 서구의 평화담론을 중국에 소개하게 된 것일까? 평화문제가 시기와 국가를 넘어서는 보편적인 주제이기는 하지만, 그 시기에 위와 같은 내용의 “미병”론은 중국인 독자들에게 있어서 다소 낯선 것이

3) 이 글의 필자는 밝혀져 있지 않지만, 본문의 내용 중 “我中國 皇上”이라는 표현 등, 전반적으로 중국을 주체로 한 논리구성으로 미루어볼 때 중국인이며, 당시 복간된 《만국공보(萬國公報)》의 편집과 주요 필자를 고려하면 선위구이(沈毓桂, 1807~1907)일 것이라고 추정된다. 선위구이의 생애와 활동에 대해서는 易惠莉, 《西學東漸與中國傳統知識分子—沈毓桂個案研究》(吉林人民出版社, 1993) 참고.

4) <論弭兵息戰之策>, 《萬國公報》(第二冊, 1889年3月), pp.10-11.

5) 본 논문에서는 세계평화회와 관련하여 여러 명칭을 사용한다. 우선 서구의 평화활동조직에 대해서는 “(세계)평화회”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하지만 헤이그 세계평화회의는 한국에서 이미 널리 사용하고 있는 바와 같이 만국평화회담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또 당시 중국에서 실제 사용한 용어를 드러내기 위해서 “미병회” 혹은 번역어인 “만국평화회의”라는 개념도 종종 사용된다.

었다. 당시 청 정부는 물론 중국의 지식인들도 서구의 위협 하에서 평화를 갈구하였지만 중국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세계의 평화질서를 수립해야 한다는 제안은 현실과 너무 거리가 먼 주장이 아닐 수 없었다. 즉 당시 현실주의적인 정치적 시각에서 볼 때, 위의 주장은 비현실적인 이상주의자의 독백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전쟁종식 방법을 논함>은 단순히 우연적이고 일시적으로 지면을 채우는 단편적인 문장이 아니었다. 그 후에도 《만국공보》는 연이어서 “미병”론을 더 체계적이고 중요한 의제로서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⁶⁾

여기서 주의할 것은 《만국공보》가 1889년에 복간된 것은 평화운동과 직접 연관은 없지만, 복간되고 나서 바로 곧 구미의 평화운동에 대한 소식에 각별히 주목한 것은 1889년이라는 특수한 해와 연관이 있다는 점이다. 세계의 평화운동의 역사에서 1889년은 기억될 만하다. 구미에서 세계평화론은 19세기 이전부터 이미 루소나 칸트와 같은 일부 철학자들이 도덕적 혹은 휴머니즘의 동기나 전쟁의 폐해를 없애기 위한 실제적인 요구에 입각하여 국가 간의 동맹회의를 주장한 바와 같이 사상적, 정치적인 의제로서 토론하였다. 특히 프랑스 혁명 이후 평화문제는 여러 계몽 의제 중 하나이자 시민의 권리로서, 정치가나 중산계층의 지식인, 학자, 시민들의 관심사로 확대되고, 국제적으로 연합된 활동들을 도모하기도 하였다. 그들의 조직적 혹은 단체를 이룬 평화운동은 각기 다른 사상적, 문화적 뿌리에서 기원했다.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앵글로 아메리칸 평화운동은 종교에 의해 추동되었다가 점차 이성적이고 세속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로 확대되었고, 벨기에나 프랑스의 평화론은 정치경제학자, 특히 프리에주의자와 생시몽주의자와 같은 진보적인 정치가들에 의해 추동되기도 하였다. 또 평화의 성격과 방법에 있어서도 평화주의자들의 견해

6) 헤이그 만국평화회담 이전 1890년대 《만국공보》에 게재된 “弭兵”에 관한 대표적인 문장은 다음과 같다. <弭兵虛願>, 《萬國公報》(第十九冊, 1890年8月); <弭兵會集>, 《萬國公報》(第二十一冊, 1890); <德願弭兵>, 《萬國公報》(第二十七冊, 1891); 鑄鐵生, <弭兵會記>, 《萬國公報》(第四十八冊, 1893); <弭兵良法>, 《萬國公報》(第五十七冊, 1893); 林樂知譯, 鑄鐵生稿, <地球弭兵會續紀>, 《萬國公報》(第六十一冊, 1894年2月); 林樂知述, 鑄鐵生作, <地球弭兵會議(上)>, 《萬國公報》(第六十二冊, 1894); 縷馨倦史, <球弭兵會議(下)>, 《萬國公報》(第六十二冊, 1894); <弭兵有效>, 《萬國公報》(第九十二冊, 1896).

는 다양했다. 온건보수파의 경향을 지닌 평화주의자들은 주로 자유주의적 경제학에서 영감을 받아 전세계의 시장과 자유무역의 발전을 중시하던 코브덴(Richard Cobden, 1804~1865)주의를 추종하였는가 하면, 또 자코뱅주의와 교권반대자를 자부하는 그룹은 노동운동 등 사회개혁을 중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세기 중엽 이후 크림아 전쟁과 미국 남북전쟁, 특히 1870~1871년 프러시아-프랑스 전쟁을 거치면서, 국가주의와 반혁명 조류, 공격적인 민족주의, 사회 다윈이즘, 보호무역주의, 대외 제국주의가 연이어 대두되었다. 그 결과 19세기 전반에 확산되던 평화운동은 위축되고 각 국가와 민족들을 연합한 국제적인 연대를 창출하려는 노력도 파산을 겪기도 하였다. 하지만 수많은 살상자를 낸 프러시아-프랑스 전쟁 및 그 후 양국 간의 심화된 불신과 불화에 따른 전쟁의 재발 위기를 계기로 구미 각국에서 평화운동이 다시 대두되었고, 1880년대에는 구미 각국에서 다양한 평화운동 조직들이 출현하였다. 뿐만 아니라 19세기이후 평화의 관념이 주로 국가 간의 전쟁 종식, 혹은 전쟁 상태로부터의 회복을 의미하게 되면서, 1864년 제네바 협약과 같이 평화의 구현은 자연히 국가 간의 협약 혹은 합의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고, 따라서 평화운동의 발전 방향은 자연히 국가를 넘어선 국제적인 연대나 연합을 지향하지 않을 수 없었다.

1889년은 바로 프랑스 혁명 100주년이었는데, 이 해에 마침내 20세기 전반 까지도 중요한 역할을 했던 중요한 국제적인 평화조직이 결성되었다. 그 중 하나는 국제의회연맹(the Interparliamentary Union)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세계평화회의(Universal Peace Congress)이다.⁷⁾ 이 중 전자는 세계평화를 위한 시민운동에 공감하고 적극 찬성하던 각국 의회 의원들이 상호 교류하며 각국 분쟁을 막고 세계평화를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던 모임이었고,

7) 1889년 파리에에서의 세계평화회의 창립대회의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다음 참고. "The Universal Peace Congress. Paris, 1889", *The American Advocate of Peace and Arbitration*(Vol. 51, No. 4/5 (September and October, 1889)), pp.97-101. 평화개념의 시대적 변화에 대해서는 빌헬름 안센 지음, 한상희 옮김,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 5: 평화》(푸른역사, 2010) 참고.

후자는 다양한 사회계층들이 참여하는 세계 평화주의자들의 연합회의였다. 세계평화회의는 그 후 매년 연례회의를 개최했을 뿐만 아니라 1891년에 국제평화사무국(Bureau international de la paix)을 설치하여 세계평화회의의 주요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⁸⁾

당시 평화운동의 발전과정을 고려하면, 앞서 언급한 <전쟁종식 방법을 논함>은 비록 아직 1889년 6월 세계평화회의가 창립되기 전에 발표된 문장이지만, 1880년대 말 구미 각 지역에서 성직자, 교사, 학자, 정치가 등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평화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세계의 주목을 받던 상황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893~1894년 《만국공보》에 연속적으로 게재된 세계평화회의에 대한 소개와 설명은 바로 당시 《만국공보》를 주도하던 영국과 미국의 선교사 티모시 리차드(Timothy Richard, 李提摩太, 1845~1919)와 영 알렌(John. A. Young, 林樂知, 1836~1907) 등이 개인적이든 종교적인 동기이든 세계평화운동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영미의 세계평화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기독교 사상과 복음주의 활동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 두 선교사의 세계평화운동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또 연이은 “종교사건(教案)”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당시 중국의 청 조정과 지식인들은 물론 일반인들이 기독교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일련의 부정적인 인식을 바로 잡는 한편, 세계열강에 의한 중국의 위기의식이 점증하던 상황에서 선교사들의 일정한 역할론을 부각시키는데 세계평화회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었다.

<미병회기(弭兵會記)>, <지구미병회속기(地球弭兵會續紀)>, <지구미병회의(상)(地球弭兵會議(上))>, <지구미병회의(하)(地球弭兵會議(下))>는 모두 복간된 《만국공보》의 편집을 맡았던 선위구이가 노령을 이유로 사직을

8) 이상 제1차 세계대전 발발 이전까지 구미지역을 중심으로 한 각종 평화운동 단체의 조직과 활동, 주장에 대해서는 Sandi E. Cooper, *Patriotic pacifism: Waging war on war in Europe, 1815-1914*(Oxford University Press, 1991). 참고, 아울러 19세기 중반 이후 영국에서의 평화운동의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특히 세계평화회의의 조직과 활동에 대해서는 제 5장 참고. Paul Laity, *The British Peace Movement 1870-1914* (Clarendon Press, 2002).

할 즈음, 새로운 중국인 편집인으로 합류하기 시작한 차이얼캉(蔡爾康)⁹⁾이 티모시 리차드 혹은 영 알렌과 협력하여 쓴 문장들이다.¹⁰⁾ 이들 문장은 <전쟁 종식 방법을 논함> 이후 세계평화회의의 개최 소식을 비롯하여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립적인 중재활동, 군비축소를 위한 정책과 각국 정치가와 의원들의 활동을 소개하고,¹¹⁾ 구미의 세계평화회의의 중심 활동과 논의, 그것이 지니는 의미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설명한 대표적인 글이다. 이 4편의 글은 선후로 서로 연계되어 있으며, 구미 평화운동에 관한 깊이 있는 정보를 중국인 독자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 그 중에서도 우선 주목되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구미지역의 세계평화 담론을 중국 춘추시대의 역사적 사건과 연계시켜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단순히 종전이나 무기 감축을 의미하는 중국어 개념은 여러 가지이지만, 당시 구미의 평화운동이 추구하던 국제적인 평화체제가 갖는 특징과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개념화가 요구되었다. 주(周) 영왕(靈王) 26년, 즉 기원전 546년 당시 패권을 둘러싸고 약소국 정복과 도발이 연이어지자, 약소국이었던 송(宋)의 대부인 향술(向戌)이 나서서 평화 회의를 주선하여, 마침내 대국 진(晉)과 초(楚)는 물론 정(鄭), 제(齊), 진(陳), 위(衛), 주(邾), 등(滕), 조(曹), 허(許) 등 각국의 제후들이 송(宋)의 서문 밖에 모여서 맹약을 체결하였다. 물론 비록 10여 년간의 평화유지에 그쳤지만, 대국과 소국을 막론하고 관련 여러 국가들의 군주와 재상들이 모여 다국적인 견제 하에서 상호 침략의 억제, 군사적 경쟁의 중지를 핵심으로 한 이른바 미병(弭兵)의 맹약을 체결한 것은 구미의 평화운

9) 차이얼캉(蔡爾康, 1851~1921), 자는 자불(紫菴)이며 필명으로는 주철암주(鑄鐵庵主), 주철생(鑄鐵生), 루형선사(樓馨仙史), 루형권사(樓馨僉史) 등을 사용하였다. 1894년 천위 구이를 대신하여 《만국공보》의 편집을 맡아 1901년까지 활동하였다.

10) 이 글에서 구미지역의 평화운동에 대한 정보는 주로 티모시 리차드나 영 알렌이 소개해주고, 그것을 중국어로 기술하면서 중국의 관점에서 보충을 한 것은 차이얼캉이었다.

11) 특히 <弭兵良法>에서는 영미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세계평화방안, 예를 들어 타국과 조약체결 시 중립적인 중재를 통한 문제해결을 조약에 명시하거나 국내 국방관련 예산을 민간을 위한 사업으로 돌리는 정책 등을 소개하고 있다. 《萬國公報》(第五十七冊, 1893年10月), 24-25쪽.

동의 취지를 설명하는데 있어 매우 적합한 개념이었다.¹²⁾

둘째, 구미의 평화운동의 사상적 근거와 중심 주체를 기독교라고 보고 있다. 세계평화운동의 이념은 매우 다양했지만, 영 알렌과 티모시 리차드 등이 소개한 것은 영미 중심의 기독교의 평화운동과 국가 간 자유로운 소통과 무역활동을 중시하는 자유주의적 사상이었다. 그들은 평화운동의 당위성에 대해 천도(天道)를 강조하였는데, 평화운동은 인간의 생명을 중시하고 전쟁을 미워하는 천(天)의 덕성과 의지에 따른 것이며, 이러한 종교적인 가르침에 입각하여 각국이 군사적인 경쟁을 도모하는 것을 보고 평화회의를 조직하였다고 주장하였다.¹³⁾ 그리고 기독교의 선교과정에서 종종 군사적인 보호에 의지하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평화를 지향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는 평화운동의 소개가 한편으로는 기독교에 대한 중국인의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고자 한 것임을 말해 준다.¹⁴⁾

셋째,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서, 여러 국가들이 참여하는 국제적인 협약을 통한 중립적인 중재기구 설립을 강조하였다. 당시 평화운동이 우선적인 목표로서 추구하던 것은 바로 세계 각국이 협약을 통해 군비 경쟁을 중지하고, 아울러 국가 간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립적인 중재기구나 제도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에 실질적인 힘을 부여하기 위해 만국공법으로 명시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세계평화회의를 조직하고, 그 회의를 통해 중립적인 중재기구나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만국공보》에서는 이와 같은 세계평화회의를 “일통대평회(一統太平會)”

12) 《左傳·襄公二十七年》: 鑄鐵生, <弭兵會記>, 《萬國公報》(第四十八冊, 1893), 14-15쪽.

13) 알렌은 평화운동의 근원은 천도(天道)이며, 그것의 세 가지 통섭력은 도통(道統, 즉 선교(傳道))과 통상(즉 무역), 국교수립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서구의 성인은 본국의 사람만이 아니라 교화가 아직 안된 곳까지도 구제하고 소통하려 한다. 세계평화회(“미병회”)가 의거하는 권한은 천도이고 그것이 의지하는 것은 천(天)이 행하고자 하는 일이다. 즉 세계평화회의의 본의는 지구상에 전쟁과 막힘이 없고 조화와 소통이 있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林樂知述, 鑄鐵生作, <地球弭兵會議(上)>, 《萬國公報》(第六十二冊, 1894), 2쪽.

14) 鑄鐵生, <弭兵會記>, 《萬國公報》(第四十八冊, 1893), 15-16쪽; 林樂知述, 鑄鐵生作, <地球弭兵會議(上)>, 《萬國公報》(第六十二冊, 1894), 1쪽.

(〈미병회기〉) 혹은 “만국태평회”(〈지구미병회의(상)〉)라고 불렀으며, 중재기구도 “미병총국(弭兵總局)”¹⁵⁾이라고 불렀다. 이러한 명칭들은 이미 당시 민간기구로 존재하던 세계평화회의나 국제평화사무국 등을 연상시키지만, 당시 평화운동이나 《만국공보》에서 계속 강조한 이유는 그러한 민간조직을 세계 각국의 정부가 참여하고 승인하여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넷째, 《만국공보》는 구미를 중심으로 한 세계정세, 특히 독일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의 연횡과 프랑스와 러시아의 합종 등으로 표출되는 전체 유럽의 위기상황과 그것이 중국 및 아시아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고 중국이 세계평화회의에 참여하고 주목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세계평화회의는 주로 유럽을 중심으로 한 군사적 충돌 위기에 기반 한 것으로서, 그 논의도 주로 유럽 내의 문제점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차이얼캉은 구미에서의 위기가 중국 및 아시아의 평화문제와 직접 연계되어 있음을 강조하였다. 유럽에서의 우열을 다투는 첨예한 경쟁이 이미 서구 열강의 패권경쟁의 장이 된 아시아로 확대되거나, 유럽에서의 경쟁의 결과에 따라 유럽 열강의 아시아 지역에 대한 정책이 변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반면 평화운동이 성공하게 되면, 당시 러시아의 압박을 받고 있는 중국이나 아시아 국가들은 “미병총국”과 같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중재기구를 통해 러시아를 제어할 수 있다. 따라서 그는 세계평화운동은 유럽만이 아니라 아시아의 장래를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¹⁶⁾

이상과 같이 《만국공보》가 중국 지식계에 평화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키고 새로운 접근 시각을 제시한 이후, 평화회의를 중심으로 한 평화문제는 당시 사상과 지식계에서 중요한 담론으로 부상하였다. 세계평화 문제는 지역적인 것이 아니라 세계평화 질서를 구축하는 문제이자, 세계 각계 인물들이

15) 林樂知譯, 鑄鐵生稿, <地球弭兵會續紀>, 《萬國公報》(第六十一冊, 1894年2月), 13~14쪽; 縷馨倦史, <球弭兵會議(下)>, 《萬國公報》(第六十二冊, 1894), 2-4쪽.

16) 林樂知譯, 鑄鐵生稿, <地球弭兵會續紀>, 《萬國公報》(第六十一冊, 1894年2月), 13~14쪽; 縷馨倦史, <球弭兵會議(下)>, 《萬國公報》(第六十二冊, 1894), 2-4쪽.

연대해야하는 문제로서 제기되었다. 일본의 《도쿄니치니치신문(東京日日報)》으로부터 번역한 <미전격(弭戰檄)>은 적십자 만국공협회(萬國公協會) 회장과 오스트리아 평화회의 의장의 공동명의로 동방 아시아 지식인들에게 인종과 종교의 차이를 넘어 세계평화회의의 활동에 참여할 것을 호소하는 서신이였다.¹⁷⁾ 이 글에서는 서구의 동양에 대한 침략행위를 비판하고 평화회의의 기본 취지 및 목표에 대한 소개와 함께 힘을 합쳐 세계평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요청하고 있다. 또 1897년 독일 함부르크에서 전 세계 16개국의 100여 명의 대표자들이 참여한 제8회 세계평화회의가 열리자, 모든 분쟁을 중립적인 기구에 맡겨 그 결정에 따르게 함으로써 태평 국면을 유지하는 것만큼 좋은 취지와 훌륭한 법은 없다고 지지하는 동일한 문장이 5개의 잡지에 연이어 게재되는가 하면,¹⁸⁾ 천쭈(陳虬)는 국제법의 관점에서 미병회와 태평회가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국제질서에서 힘이나 세력의 지배와 영향을 묵인하는 방침(默許法)을 없애고 “자연법(性法)”에 근거하도록 해야 한다고 비평하기도 하였다.¹⁹⁾ 이와 같이 19세기 말 세계평화 담론은 점차 중국인의 세계인식과 사상에서 중요한 지위를 점하게 된다.

3. 헤이그 만국평화회담과 평화담론의 분기

중국의 지식인들이 본격적으로 세계평화회의를 중심으로 한 평화론에 대해 보다 심도있게 이해하고 비평을 제기한 것은 1899년 헤이그 만국평화회담이

17) (日)古城貞吉譯, <弭戰檄>(東京日日報西十月三十日), 《時務報》(第四十七冊, 1897年12月), 23-24쪽.

18) <萬國平和會議>, 《奏中西局匯報》, 1897年(구체적인 발표 월일은 미상); 《經世報》(第六冊, 1897年9月); 《集成報》(第二十四冊, 1897年12月); 《萃報》(第十四期, 1897); 《蘇報》(1897年10月).

19) 東甌陳虬撰, <論西國既設弭兵太平二會宜急先削去公法中之默許法而專力行性法>, 《經世報》(第七冊, 1897年9月), 26쪽.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헤이그 만국평화회담은 1898년 8월 24일 러시아 차르 니콜라이 2세가 제기한 후 1899년 4월 네덜란드가 회의 주관을 수락하고 나서 같은 해 5월 18일부터 7월 29일까지 네덜란드의 헤이그에서 26개국이 모여 제1차 회의를 진행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국가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 중재재판소의 설치, 육지전 원칙의 해상전에까지 적용하는 국제전시법 개정, 발사체 기구나 질식성 가스, 덤덤탄과 같은 치명적인 인명살상 무기 사용 금지 등이 주요 의제였다. 회담결과 각 국가의 상황과 입장차이로 군비축소와 무기 사용금지는 권고에 그쳤지만 국제분쟁 해결을 위한 국제중재재판소가 설립되었다. 그 후 1904년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제1차 만국평화회담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하려 하였으나 같은 해 발발한 러일전쟁으로 발의가 연기되었고, 다시 니콜라이 2세의 소집요청으로 1907년 6월 15일부터 10월 18일까지 헤이그에서 개최되었다. 2차 회의에서는 이른바 자주권을 갖춘 44개국이 참여하였으며, 계약상의 채무회수를 위한 병력사용 제한, 전쟁 시 중립국의 권리와 의미, 전쟁 시 상대국 상선에 대한 취급과 해저수뢰 부설 등에 관해 협의하였다.²⁰⁾

헤이그 만국평화회담은 그동안 주로 시민들과 일부 정치인들이 중심이 되어 진행되던 세계평화운동이 국제적인 차원에서 국가가 주체가 된 공식적인 의제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했다. 그런 만큼 그동안 중국에 세계평화회의와 그 활동을 적극 소개하던 《만국공보》는 물론 이미 중국 지식인들에 의해 발간되던 신문과 잡지에서도 깊은 관심은 가지고 진행과정을 소개하였다. 중국에서의 헤이그 만국평화회담에 대한 정보는 크게 두 가지 서로 다른 원천에 기반해 있었다. 즉 《만국공보》는 주로 영미의 지식인과 매체를 정보 출처로 삼고

20) 양차 헤이그 평화회담의 성격과 결과에 대해서는 따지야나 심비르체바, <1907년 헤이그 평화회의의 개최과정과 성격>,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9, 2007, pp.57-85; James Brown Scott ed, *The proceedings of the Hague Peace Conferences: translation of the official text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20) 참고, 회의 구성과 진행과정 및 관련 상세한 자료에 대해서는 James Brown Scott ed, *The Hague Peace Conferences of 1899 and 1907* (1~2), (Baltimore: Johns Hopkins Press, 1909) 참고. 일본어 자료는 外務省編纂, 《日本外交文書: 海牙萬國平和會議》(巖南堂書店, 1955.3 (3版: 2007)) 참고.

있었고, 《청의보(淸議報)》, 《아동시보(亞東時報)》와 같은 잡지는 주로 일본 지식인과 매체를 정보 출처로 삼고 있었다. 따라서 중국에서의 헤이그 만국 평화회담에 대한 지식은 그 내용상의 특징으로부터 보면 영미적인 시각과 일본의 시각이 병존하고 있으며, 이 두 시각은 유사점도 있지만 적지 않은 차이점도 보인다.

먼저 《만국공보》에서는 회의의 의제와 분과별 논의 및 진행과정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소개하고, 사안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분석하고 있다.²¹⁾ 이는 중국인들이 만국평화 회담에 대해 보다 깊고 상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 만국평화회담은 일정한 적잖은 성과가 있기는 했지만, 정작 중요한 군비축소와 대규모 살상무기에 대한 근본적 사용금지 실패, 국제중재재판소를 통한 문제해결 방식에 대한 강대국의 회피 가능성 등 문제는 세계평화보장에 있어서 중대한 결함이었다. 이는 만국평화회담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려했던 제1차 유럽대전의 발발을 막지 못했던 역사적 사실이 잘 말해 준다. 그러나 《만국공보》는 여러 국가들 사이에서 나타난 입장 차이, 예를 들어 제2차 회의에서 군비축소에 독일의 거부입장이 독일측면에서 볼 때 거부할 만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긍정하는 등²²⁾ 내부의 논쟁보다 연속적인 회의와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국가 간 분쟁 해결을 막기 위한 국제중재재판소의 역할에 높은 기대를 부여했다.²³⁾ 그러한 낙관적 기대에는 윤리적 당위성과 인류의 평화를 선택이 아니라 하나의 필요불가결한 목적으로 강조하는 종교적 파토스가 작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티모시 리차드, 영 알렌, 그리고 캐나다 장로회 선교사 도널드 맥길리브레이(Donald MacGillivray, 季理斐, 1862~1931)와 그들의 중국 기독교 협력자들에게 있어서 세계평화회의와 만

21) <弭兵會日記>, 《萬國公報》(第百二十六冊, 1899), 57-60쪽; 林樂知譯, 任廷旭志, <弭兵會散會情形述畧>, 《萬國公報》(第百三十冊, 1899), 25-26쪽; 英國季理斐譯, 東吳范禕述, <論弭兵會第二次之聚集>, 《萬國公報》(第百八冊, 1906), 1-5쪽; 英國季理斐譯, 元和曹曾涵述, <荷京第二次弭兵會>, 《萬國公報》(第百二十三冊, 1907), 41-43쪽.

22) 英國季理斐譯, 東吳范禕述, <論弭兵會第二次之聚集>, 《萬國公報》(第百八冊, 1906), 2쪽.

23) 美國林樂知譯, 吳江任保羅述, <論捐建哈格弭兵會公斷衙門>, 《萬國公報》(第百冊, 1905), 8-10쪽.

국평화회담은 어렵지만 포기할 수 없는, 그리고 결국에는 이루게 될 약속과 같은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일본을 경유한 만국평화회담에 관한 논의는 일본이 당시 처한 지형학적 위치가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1898년 니콜라이 2세가 만국평화회담 소집을 제안하고 나서 얼마 후 곧, 정간된 《시무보》를 이어 새로 창간된 《창언보(昌言報)》에 고조 테이키치(古城貞吉)는 일본 신문으로부터 번역한 만국평화회담에 관한 기사를 게재하였다. 그 첫 기사는 바로 그 회담 소집 제안에 대한 일본(실은 일본만이 아니라 중국이나 대한제국도 비슷했을 것 같지만)의 반응을 잘 말해 준다. 그것은 바로 러시아 차르 니콜라이 2세가 왜 만국평화회담을 제안했는가 하는 것이었다. 즉 회담의 의제와 목적보다는 그와 같은 회담을 제안한 “숨은” 의도가 더 중요한 문제였던 것이다. 이는 《만국공보》 편집자들보다 일본이 더 현실적이고 정치적인 관점에서 접근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니콜라이 2세의 의도에 대해서는 일본만 아니라 서구에서도 의구심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 청일전쟁 이후 러시아의 만주지역과 대한제국에 대한 팽창정책으로 일본과 충돌을 하고 있던 과정에서 제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본에서 그 진정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일본의 법학자 테라오 도루(寺尾亨)는 당시 일본의 여론에 대해 “평화회의에 대해 신문기자들 대부분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지금까지 러시아의 정책으로 미루어보면 아마도 그러한 제안이 일시적인 방편에 지나지 않을 거라고 말한다”고 묘사하기도 하였다.²⁴⁾

《니혼신문日本報》(1898년 9월 6일자)에서는 러시아 황제가 평화회담을 제의한 동기와 이유에 관한 다양한 주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1) 러시아 재정의 궁핍. 니콜라이 2세가 등극한 이후 전함과 군비를 확충하고, 시베리아철도를 부설하는 등 인접국가에 대한 팽창정책과 기근으로 경제가 어려워져서 부득이하게 평화정책을 내세우게 되었다. 2) 국가의 내홍에 대한 우려.

24) 寺尾亨, <萬國平和同盟說源流考>(《國家學雜誌》第144冊에서 번역), 《清議報》(第十二冊, 光緒二十五年(1899), 3月11日), 4쪽.

허무당 등의 봉기와 국가 관리들의 인심이반 등이 우려되자 평화회담을 통해 여론의 방향을 전환하여 무마하기 위한 임시정책이다. 3) 러시아 전략적 방침. 즉 궁극적으로 세력 확장을 위한 장기적인 전략 하에서 제기하였다. 이러한 주장들에 의하면 러시아 황제의 평화회담 제의는 진정성이 없이 부득이한 상황에서 임시방편으로 제기한 것이었다. 또 《오사카아사히신문(大阪朝日報)》(1898년 9월 6일자)에 게재된 글에서 국제법학자 아리가 나가오(有賀長雄)는 러시아 황제의 회담 제의의 의도는 알 수 없으며, 그 요지도 만국공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그 주요 취지가 군비증강의 억제와 감축에 있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이 못될 뿐만 아니라, 기존의 대국에 비해 신흥국에 불리한 조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주장이 의거하는 세력균형이라는 정책은 과거 외교에서 채택하기는 했지만 현재 국제법 학자들은 이미 시대에 뒤진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그는 러시아 황제의 제의는 현실에서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였다.²⁵⁾ 이러한 “의도론”은 아리가 나가오가 헤이그 만국평화회담에 일본 대표단으로 참석하고 나서 《가이코시보(外交時報)》에 게재한 여러 편의 글에서도 여전히 보여준다.²⁶⁾ 그는 상비군의 수의 제한과 군비증강을 제한하는 러시아의 제안이, 군사력이란 군비이외에 지세, 역사, 풍속, 교육, 재정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고, 또 군사비는 각 국의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안이라는 등의 이유로 다른 국가에 의해 거부되었음을 설명하면서, 러시아가 평화회의를 제창하며 군사비의 과중을 논하는 것은 건달, 도둑이 경찰 유지를 위한 세금이 많다는 이유로 경찰의 수를 줄이자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하고 있다.²⁷⁾ 즉 러시아가 아시아 지역을 강탈하면서 군사비의 과중을 논하고 있는

25) 日本古城貞吉譯, <俄倡弭兵會>, 《昌言報》(第五期, 1898), 22-23쪽.

26) 아리가 나가오는 1899년 4월 14일부터 9월 26일까지 만국평화회담을 위한 일본 대표단을 수행했는데, 회담이 진행되던 시기부터 <萬國平和會議紀行>(제18권), <萬國平和會議記事>(제19권), <萬國平和會議瑣談>(제19~20권), <萬國平和會議議事>(제20권), <萬國平和會議之一成一敗>(제21권) 등 자세한 소식을 자신이 창간하고 편집을 맡고 있던 《外交時報》(제18권(1899.7.10.)~제21권(1899.10.10))에 자세히 게재하였다.

27) [日] 文學士 有賀長雄, <論萬國弭兵會結果>, 《亞東時報》(第十七號, 1899年11月), 10쪽. 이 문장은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有賀長雄, <萬國平和會議之一成一敗>(《外交時

것은 자기모순이자 기만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에서 세계평화회의와 헤이그 만국평화회담에 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은 주로 일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앞서 언급한 테라오 도루는 러시아 황제의 의도가 어떠한 간에 제안 그 자체는 매우 훌륭한 것으로 사람들이 환영할 만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만국평화회의의 주지인 군비확장 금지나 중재재판소의 설치 등이 약육강식의 시대에 실행가능할지 의문이고,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전쟁을 없애지는 못할 것이라고 보면서도, 그는 평화회담의 역사적인 의미와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 서구의 세계평화운동과 동맹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기도 하였다.²⁸⁾ 또 앞서 언급한 아리가 나가오의 문장 역시 비록 만국평화회담을 제안한 러시아의 기만성을 비판하기는 했지만, 제1차 헤이그 만국평화회담의 쟁점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하였으며, 제2차 헤이그 만국평화회담의 경과과정과 주요 쟁점에 대해 가장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소개한 것 역시 일본의 국제법 학자 스에히로 시게오(末廣重雄)의 문장이었다.²⁹⁾

중국에 소개된 만국평화회담에 대한 일본인의 문장은 세계평화회의의 필요성과 의의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주로 국제법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다국적인 협의과정을 통해 제정 혹은 수정 보완되는 국제법은 국가 간의 현실적인 이해관계 하에서 이루어지며, 법과 제도의 제정과 승인, 집행과정에서 많은 난제들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만국평화회담에 대한 일본의 평가와 기대는 이상적이라기보다는 현실주의적일 뿐만 아니라, 일본의 국가적 이해관계의 입장이 강하게 투영되어 있다. 또 세계평화든 일국의 평화든 그것을 보장하는 것은 국제법이나 세계평화회담이라기보다는 현실적인 자기방어력이라는 의식이 강하게 지배하고 있으며, 세계평화회담은 전쟁의 종식이 아니라

報》第21卷, 1899.10.10, pp.881-888)을 번역한 것으로 보인다.

28) 寺尾亨, <萬國平和同盟說源流考>, 《清議報》(第十二冊, 光緒二十五年(1899), 3月11日); 《清議報》(第十五冊, 光緒二十五年(1899), 4月11日); 《清議報》(第十七冊, 光緒二十五年(1899), 5月1日).

29) 末廣博士著, 朱獻文譯, <第二回萬國平和會義與關於平和之諸問題>, 《學海: 甲編(文科·法科·政治科·商業科)》第1卷4期, 北京大學留日學生編譯社發行, 1908, pp.73-90.

전쟁의 발단과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종의 전시상황의 규범이라는 인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4. 평화회의와 중국의 평화담론

구미의 평화담론이 중국 지식인들의 사유와 사상담론에서 일정한 의미로서 수용되기 시작한 것은 1893년~1894년 《만국공보》에서 서구의 세계평화회의(미병회의)를 연이어 소개하고 난 이후였다.³⁰⁾ 평화가 지닌 보편적인 가치는 고급동서를 막론하고 논쟁이 될 것이 없지만, 인류역사에서 전쟁이 가지는 의미와 현실조건 속에서 평화를 이루기 위한 조건, 그리고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평화의 이상에 대해서는 여러 주장이 있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일국적인 평화가 아니라 세계의 평화를 사유할 때, 그것의 실현을 위해 참여할 수 있는 조건과 지위는 종종 발언자의 입장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세계평화회의를 중심으로 한 평화담론을 처음 중국 지식계의 중심문제로 제기한 한 사람은 바로 정관잉(鄭觀應)이었다. 그는 일본과의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이던 1894년, 당시 가장 중요한 정치사상 논저인 《성세위언(盛世危言)》(5권본)을 완성하였는데, 전체 54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미병(弭兵)>이었다. 즉 부강과 당면한 위기극복을 위한 중국의 급선무 혹은 필요한 정책 중 하나가 “미병”이었던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그가 평화주의자는 아니었다. 《성세위언》에서 더 중요하게 다룬 것은 바로 중국의 부강을 위한 국방의 현대화였다.³¹⁾ 부강한 국가는 타국의 침략 야욕을 억제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입장에서는 매우

30) 19세기 말 중국의 세계평화회의에 관한 논의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다음 논문은 당시 주요 논자와 주요 내용을 간략히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田濤, <晚清知識界的弭兵說>, 《天津師範大學學報》 總第196期, 2008年第1期, pp.38-43.

31) 《盛世危言》에는 <弭兵>에 앞서 <防海>, <防邊>, <練兵>, <水師>, <船政>, <民團>, <火器>와 같은 중국의 군사 및 무기의 현대화에 더 중점을 두고 논하고 있다.

긴급하고 중대한 사안이었다. 정관잉은 당시 중국의 상황에 대해 국가가 평화 시에 정치와 형벌을 명확히 하고 교화를 행하며, 군대의 기율과 장수의 양성, 신무기의 무장을 행하면 적이 어떻게 능욕할 마음을 갖겠는가? 현재 중국은 변방이 잘라져 나가고 국경이 압박을 받으며, 자국민을 강탈하고 죽여도 따지지 못하고, 재물을 요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고 탄식하였다. 그리고 군사는 100년간 사용하지 않게 되더라도 하루라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³²⁾ 즉 그에게 있어서 평화의 기본 조건은 충분한 자기 방어능력이었다.

그러나 중국의 부강이 곧 평화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었다. 평화는 중국의 의지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평화는 시대의 발전 추세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았던 것 같다. 세계 변화에 대한 중국의 전통적인 인식에 의하면, 혼란이 극에 달하면 평화에 이르게 되고, 평화가 극에 이르면 혼란이 발생하게 된다. 당시 세계는 크게 분화하여 전쟁으로 인한 혼란이 극에 달해 있었고, 이제 점차 통합의 시기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이 정관잉의 세계인식이었다.³³⁾ 그리고 국가 간의 분쟁이 중립적인 중재에 의해 점차 해결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은 그러한 변화의 징조이며, 이는 바로 세계평화회의의 결과였다.³⁴⁾ 결국 정관잉은 세계의 평화는 혼란에서 평화로, 그리고 다시 혼란으로 영원히 순환하는 역사의 한 과정이며, 중국을 비롯해 세계를 극도로 위협에 처하게 만든 당시 세계의 상황과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점증하는 비판 의식에 비추어 볼 때 바로 혼란에서 평화로 전환하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러한 역사를 중심에서 추동하고 있는 주체는 바로 세계평화회의라고 보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정관잉의 평화론은 현대 당면과제로서의 국방의 현대화와 인류의 발전 추세로서의 전쟁종식 및 세계평화에 대한 기대가 공존하고 있다. 하지만 이후 중국의 지식계는 정관잉의 평화론의 이중

32) 夏東元編, <盛世危言·弭兵>, 《鄭觀應集》(上冊)(上海人民出版社, 1982), 925쪽.

33) 夏東元編, 앞의 책, 924쪽.

34) 정관잉은 <弭兵>의 뒷부분에서 당시 《만국공보》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영국 평화회의의 중재와 법률적 규범에 의한 평화운동을 소개하고 있다. 夏東元編, 앞의 책, 926쪽.

적 성격이 분화되어 상호 대립하기도 하였다.

4.1 이념으로서의 평화와 대동 세계

정관잉에게는 세계의 평화는 세계의 일통이었다. 정관잉은 “천하는 어떻게 안정됩니까(天下惡乎定)”라는 질문에 “일통으로 안정됩니다(定于一)”, “누가 일통을 할 수 있겠소?” “사람을 죽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자가 일통을 할 수 있습니다”³⁵⁾라는 맹자와 양혜왕 사이의 대화를 인용하고 있다. 즉 전쟁을 좋아하지 않는 군주의 덕성에 의해 천하가 통일되고 그 결과 천하의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³⁶⁾ 물론 정관잉이 추구한 정치체제는 입헌제에 기반한 것으로 일통의 천하 역시 중국의 과거 정치체제와는 다를 것으로 보이지만, 이에 대한 더 이상의 구체적인 설명은 없다.

정관잉의 영향인지는 명확히 알 수 없지만, “미병”은 중국을 변화시킬 정책 혹은 계몽의 중요한 사안으로서 간주되었다. 당시 중국의 사회문제와 지식의 변화를 잘 보여주는 일련의 “경세문편(經世文編)” 가운데 “미병”이 중요한 주제로서 관련 문장이 선정되고 있다는 것이 이를 잘 말해준다. 예를 들어 1898년 마이중화(麥仲華)가 편찬한 《황조경세문신편(皇朝經世文新編)》의 <민정(民政)>에 “미병” 관련 문장이 다수 수록되었는데, 그 문장 대부분이 1893~1894년 《만국공보》에 실린 글들이었다.³⁷⁾ 또 1901년 샤오즈탕(邵之棠)의

35) 《孟子·梁惠王上》

36) 여기서 “사람을 죽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자”는 바로 《만국공보》에서 세계평화를 추구하는 기독교와 평화운동가들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했는데, 이는 차이얼강도 바로 《맹자》의 이 구절을 참조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즉 정관잉과 차이얼강은 다소 다른 시각에서 출발하고 있지만, 평화로운 하나의 세계를 평화의 궁극으로 상정하고 있다.

37) “미병” 관련 문장은 다음과 같다. <弭兵會記又名萬國太平大會>(英人李提摩太附), <弭兵會續記>(美人林樂知附), <弭兵會議上>(美人林樂知附), <弭兵會議下>(美人林樂知附), <論弭兵會>, <列國息爭條約>(日人關名附). 이 가운데 고조 테이키치(古城貞吉)가 일본의 《國民雜誌》(三月十四日)에서 번역하여 《時務報》(第廿四冊, 1897年4月22日)에 게재했던 <列國息爭條約>을 제외하면 모두 《만국공보》에 게재된 문장들이다. 清麥仲華主編, 《皇朝經世文新編·卷十八下民政》(二十一卷, 上海大同譯書局刊行, 1898).

《황조경세문통편(皇朝經世文統編)》에도 《황조경세문신편》에 실린 “미병” 관련 문장이 모두 수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침병설(寢兵說)>과 왕취런(王覺任)의 <열국 전쟁종식의 공리를 논함(論列國息爭之公理)>이 추가로 선정되었다.³⁸⁾ 이어 1902년 간한(甘韓)이 주편한 《황조경세문신편속집(皇朝經世文新編續集)》에는 앞의 두 “경세문편”에 실린 문장은 모두 제외하고 새롭게 <재병사의(裁兵私議)>, <미병회불가심신론(弭兵會不可深信論)>, <향술의 미병과 서구의 금일 설립한 미병회의 같은 점과 차이점에 대해 논함(向戎弭兵與西人今日所設弭兵會異同若何論)>이 수록되었다.³⁹⁾

이 가운데 왕취런(王覺任)의 <열국 전쟁종식의 공리를 논함>은 당시 세계 평화회의에 대한 중국의 시각과 중국의 평화관념의 한 특징을 잘 보여주는 문장이다. 왕취런은 Kang유웨이(康有為)의 만목초당에서 초기부터 활동한 제자였으며, 1896년에는 쉬친(徐勤)과 함께 학당의 학장으로서 학당의 관리와 교학업무를 담당하기도 하였다. 왕취런의 문장이 《황조경세문통편》에 수록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황조경세문신편》은 기본적으로 《황조경세문신편》의 체제를 따르고 있는데, 후자를 편찬한 마이중화(麥仲華)는 바로 Kang유웨이 그룹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이는 이전의 “경세문편”의 체제와 비교하여 많은 차이점을 보여주는 《황조경세문신편》에 그 편집기준에 있어서 Kang유웨이 그룹의 입장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으며, 여기에 《만국공보》의 세계평화회의에 관한 문장이 다수 수록된 것도 바로 그러한 입장을 나타내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샤오즈탕이 마이명화의 선정기준을 그대로 계승하고 아울러 Kang유웨이 그룹 중 한 사람의 문장을 더 추가하여 수록한 것은 그 역시 Kang유웨이 그룹의 영향 하

38) 邵之棠輯, 《皇朝經世文統編·卷八十六·經武部十七弭兵》(一百零七卷, 敷文學堂藏本, 1901)(邵之棠輯, 《皇朝經世文統編》(臺北: 文海出版社有限公司, 民國六十九年))。

39) 晉安甘韓眠羊甫輯, 楊鳳藻校正, 《皇朝經世文新編續集·卷十四下》(二十一卷, 商絳雪齋書局印, 1902)。이 가운데 <裁兵私議>는 화녕(懷寧) 허시넨(何熙年)이 《時務報》(第五十四冊, 1898年3月13日)에 투고했던 글이고, <弭兵會不可深信論>은 일본의 《每禮拜報》(九月十日)에 게재된 글을 번역하여 《昌言報》(第五冊, 1898年10月1日)에 게재했던 문장이었다。

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 준다. 따라서 《황조경세문통편》에 실린 왕첸런의 위문장은 당시 평화담론에 대해 캉유웨이 그룹이 가지고 있던 시각의 일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왕첸런은 인류역사에서 폭력의 비극성과 그러한 폭력을 위대한 인물의 업적으로 미화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전쟁으로 위대해진 인물들은 인류의 범죄자라고 주장하였다. 또 공자의 인명을 중시하는 사상이나 불교의 중생구제, 묵가의 비공(非攻), 기독교의 구세사상이 모두 타 지역 및 국가에 대한 침략을 비판하고 있다. 쟁탈과 살상이야말로 인류의 큰 우환이자 천심(天心)이 원망하고 미워하는 바이며, 성인들이 애통해 하는 바로서 전 지구 각 국의 큰 우환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뜻있는 사람들이 민주국이든 군민공주(君民共主) 혹은 군주국이든 모두를 규합하여 신뢰를 바탕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두 국가 간의 분규가 발생하면 각 국이 한데 모여 공정하게 판결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만약 이러한 판결에 불복할 경우, 천하가 함께 나서서 그를 공격하여 군주를 폐하고 어진 인물을 대신 세우면, 시비가 올바르게 서고 강자가 약자를 다수가 소수를 능멸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 그는 이와 같이 인류의 평화를 위한 노력들이 동양에는 태평회가 있고, 서양에는 세계평화회의(미병회)가 있는데, 그 취지는 같으나 방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영국과 미국에서 추구하는 것이 가장 훌륭하다. 이제 그들의 방식을 따라 조약을 체결하고 준수하면, 전쟁은 상호 양보로, 재앙은 복으로 바뀌게 되며, 불인(不忍)의 마음에 입각한 불인의 정치가 행해지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맹자가 백성을 지역적으로 나누되 국경의 경계로써 하지 않고, 국가를 견고하게 하는데 산과 강의 험준함으로 하지 않으며, 천하를 두렵게 하되 무기의 예리함으로 하지 않는다”⁴⁰⁾고 한 것이나 《춘추》에서 땅은 나눌 수 있으나 백성은 나눌 수 없다고 한 것, 그리고 대동의 치세가 의미하는 바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주장하였다.⁴¹⁾ 이와 같이 왕첸런은 세계평화회의의 혹은 미병회를 인류의 대동

40) “城民不以封疆之界，固國不以山溪之險，威天下不以兵革之利。”《孟子·公孫丑下》。

41) 王覺任, <論列國息爭之公理>, 邵之棠輯, 《皇朝經世文統編》(臺北: 文海出版社有限公司, 民國六十九年)。

사회라는 이념과 연계시켜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는 곧 Kangyue의 《대동서》에 보여주는 평화관념과 매우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Kangyue의 《대동서》에서 세계평화는 전체 저서의 궁극적인 취지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자연적 고통과 전쟁 중 인류사회에 의한 고통에서 벗어나 모든 인류가 평화로운 삶을 영유하는 것이 “대동”의 목적이라면, “미병”은 그러한 세계를 위한 기본 조건이 될 수밖에 없다. Kangyue의 대동사상에서 특징적인 것은 바로 국가의 경계를 없애는 것이다. 국가의 경계를 없애기 위해 강국에 의한 소국의 강제합병과 같은 방법이 용인되는 것과 같이, Kangyue는 인류의 대동 사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제국주의의 역할에 대해 매우 관대한 편이다. 이는 그가 인류의 대동사회가 인위적인 기획이 아니라 역사의 자연적인 발전 추세에 따른 결과로 보고, 역사의 “진보”과정에서 나타나는 비극을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한 데서 연유한다.⁴²⁾ 그는 이념을 따라 전쟁을 없애고 국가를 제거하려고 하면 이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당시 인심이나 시대의 추세로 보건데, 비록 우여곡절을 거치고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전쟁을 없애고 국가의 경계를 없애는 때는 장차 이르게 될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공자의 태평세나 불교의 연화(蓮花)세계, 다윈의 유토피아는 공상이 아니라 실제 가능한 세계라고 보았다.⁴³⁾ 이러한 관점에서 Kangyue는 러시아 니콜라이 2세가 제의한 만국평화회의는 지구의 만국이 하나로 서로 연합하는 시작이고, 대동의 세계를 여는 기반이라고 평가하였다.⁴⁴⁾ 지금은 단지 각 국가가 대표를 파견하고 각기 주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최근 수 십년 사이에 “미병설”이 나날이 커지고 있어 국가의 경계를 넘어 대동사회로 나아갈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미병설이 성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길, 바로 강대국에 의해 소국들이 합병되어 이제 몇몇 대국들만이 남게 되었는데, 그 결과 대국들 간의 전쟁은 막대한 피해를 낼 수 있어 부득이 하게 서로 전쟁을 억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전쟁을 피하기 위해 “만국공원(萬國公院)”을 요

42) 錢鍾書 主編, 《康有爲大同論二種》(三聯書店, 1998), 120쪽.

43) 錢鍾書 主編, 위의 책, 120쪽.

44) 錢鍾書 主編, 위의 책, 126쪽.

구하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고 보았다. 대동세계로 나아가감에 있어 중요한 단계인 공의정부(公議政府)는 바로 당시 세계평화회의나 만국평화회담에서 논의하던 중립적인 중재재판소와는 다르지만, 국가 간의 분쟁과 일을 처리하는 구상은 그것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캉유웨이의 평화관념 및 대동사회의 이념은 민족 혹은 국가의 주권을 부정한다는 의미에서 당시 주권국가 간의 규약을 추구하던 세계평화 운동마저도 넘어서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2 세계평화와 주권 불평등

캉유웨이 그룹이 중국의 전통적인 대동이념을 발전시켜 세계의 일통이라는 관점에서 세계평화회의를 평가했다면, 당시 적지 않은 중국 지식인들은 국가와 민족, 특히 주변 또는 약소국가의 입장에서 세계평화회의를 인식했다. 1902년 간한(甘韓)이 《황조경세문신편속집》을 위해 선정한 “미병”에 관한 문장은 앞서 두 “경세문편”에 실린 문장과 그 주장이 전혀 다르다. 특히 그 가운데 <재병사의>, <미병회불가심신론> 두 편은 모두 당시 세계평화회의 혹은 만국평화회담에서 주장한 각 국가의 군비축소에 대한 비판을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었다. 이러한 입장은 당시 중국 지식인들 대부분이 가지고 있던 관점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미병회불가심신론>은 일본인의 문장으로, 그 주요내용도 러시아 니콜라이 2세의 만국평화회의 소집에 대한 비판에 집중되어 있다. 저자에 의하면 만국평화를 위해서는 만국이 조약을 체결하여 어느 나라도 이를 위반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그렇게 하여 영구적인 평화를 이룰 수 있다면 인류에게 다행한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미병공회(弭兵公會)가 어떠한 방식으로 가능할지, 즉 각 국가가 자발적으로 무기를 버리고 함께 화목을 도모할지 아니면 대대적인 전쟁을 거친 후에 반성을 하며 도모할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시기도 예측하기 어렵다. 더욱이 현재 러시아 차르의 제안은 군비확충과

대의 팽창을 진행하는 와중에 제기된 것으로 그 의도가 심히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그는 러시아가 최근 영국과 미국의 해군력과 군비가 급속하게 증강되는 것을 우려하여 이를 견제하기 위한 방책으로 제안했을 것으로 보고, 일본은 강국이 되기 위해 더욱 더 군사력을 증강해야하고, 중국도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군사력을 배가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그러한 회의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⁴⁵⁾

일본의 주요 논리가 세계평화회의(미병회) 성격이나 한계보다는 러시아의 숨은 의도를 비판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면, 중국의 또 다른 입장은 세계평화회의의 한계와 그것에 의존하려는 중국내 일부 입장에 대해 비판을 하고 있다. 현실주의적인 입장은 인류, 일통, 영구적 평화가 아니라 민족과 국가의 입장에서 있으며,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국가의 존립을 목적으로 한 평화를 추구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세계평화회의는 국가의 강권논리 앞에서 무력하거나 심지어 국가의 이해득실을 초월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이러한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은 허시넨(何熙年)을 비롯하여 장즈둥(張之洞)과 장타이엔(章太炎) 등을 들 수 있다.

러시아 니콜라이 2세가 만국평화회의의 소집을 요청하기 전인 1898년 3월에 발표된 허시넨의 <재병사의>는 당시 중국내에서 일부 제기되던 감군(減軍)론을 비판하고 있다. 당시 일부에서는 청일전쟁의 패전에서 보여주듯이 중국의 군대가 무력하여 무용하고, 또 방탕하고 병약하며 거지근성을 지니고 있어 사회적인 혼란만 야기하기 때문에 감군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고 주장하였다. 또 전쟁이 없을 때는 군인을 줄이고 유사시에 다시 소집하면 오히려 활력이 생겨 나태하고 약한 모습을 없앨 수 있고, 또 부족한 국고를 더욱 어렵게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허시넨은 열강들이 중국을 에워싸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지금, 군대를 감축하는 것은 망국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며, 특히 중국 군대가 무용했던 것은 중국 군대가 본래 그러한 것이 아니라 현대적인 군사체제와 훈련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또 일각

45) <弭兵會不可深信論>, 《昌言報》(第五冊, 1898年10月1日).

에서는 외환과 관련하여 지금은 강국이 서로 대치하여 감히 서로 도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국제법에 의거하여 타국의 능욕을 참고 내실을 다져서 수년 후에 국가의 경제가 나아졌을 때 군대를 모집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허시넨은 이는 요행의 심리일 뿐이다. 적의 속마음을 잘 알 수 없고, 더욱이 그들이 우리를 병탄하려는 것은 명확한데 요행에만 의존할 수 없다. 또 국제법에 의존한다고 하나 국제법을 좌우하는 것은 열강들로서, 그것에만 의지할 수 없다고 비판하였다.⁴⁶⁾

장즈둥 역시 군사는 한 국가에게 있어서 기(氣)와 같은 것으로서, 군사 없이 국가는 존립할 수 없다고 보았다. 전쟁을 없애는 것은 군사의 훈련만한 것이 없다. 전함 50척, 훈련된 육군 병사 30만이 있고, 포대와 군사무기가 날로 견고해지고 풍부해지면 각국이 서로 바라볼 뿐 선제공격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도발하는 자가 있다면 고립되고 구차함을 면치 못할 것이니 이렇게 되면 동방의 태평국면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았다. 이는 단순히 세력균형론이라기 보다는 자강을 통한 자기방어를 주장한 것이었다. 그는 당시 미병회의에 대해서도 매우 비판적이었다.

일찍이 티모시 리차드는 중국의 안민(安民)정책의 일환으로서, 군사의 정비 정돈이외에 세계평화회의(미병회)에 참여할 것을 제안하며, “만약 여러 대국의 공론(公論)에 부치게 되면 진정과 예의로써 설득할 수 있다. 중국은 각국과 서로 도와서 형세를 유지하고 함께 태평을 보존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공회(公會)와 공법(公法)에 참여할 수 있다”⁴⁷⁾고 주장하였다. 탕차이창(唐才常) 또한 미병회나 공법이 당장 중국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지는 않았지만, 세계의 평화는 세계인심의 변화로부터 시작되는 만큼 현재 세계평화회의는 그러한 민심을 변화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구 각국의 분쟁을 해결하는데 중립적 중재제도가 적지 않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당시 일각에서 제안하던, 세계 각국이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공정한

46) 懷寧 何熙年, <裁兵私議>, 《時務報》(第五十四冊, 1898年3月13日), 1-5쪽.

47) 李提摩太, <新政策>(1895), 中國史學會, 《戊戌變法(三)》(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57), 236쪽.

대표인물을 파견하여 국가 간의 분쟁을 처리하게 하는 것과 국제법(公法)을 보완하는 한편 모든 국가가 이를 준수하는 방안에 대해, 이는 수천 년의 전쟁의 재앙을 없애고 인류가 거란세에서 승평세로 나아가는 방책이라고 보았다.⁴⁸⁾

이와 같이 당시 지식인들 가운데 추세가 날로 험악해지고 공격력과 방어력 어느 하나 준비되지 못한 상황을 한탄하며 서구의 평화회의(미병회)에 주목하고, 심지어 이에 가입하여 동방의 태평국면을 보존할 것을 주창하기도 하였는데, 장즈둥은 이에 대해 무의미하게 모욕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그가 근거로 제시한 이유는 두 가지였다.

첫째, 근래 러시아의 터키공격, 독일의 아프리카 점령, 영국의 이집트 및 중국 시장(西藏) 침략, 스페인의 쿠바 공격, 터키의 그리스 침략, 독일의 자오저우(膠州) 점령, 러시아의 뤼순(旅順) 점령 등이 연이어졌지만, 당시 적극적으로 활동하던 오스트리아 평화회의(奧國弭兵社, Österreichische Gesellschaft der Friedensfreunde, 1891년 창립)는 이를 막거나 중재하기 위한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 만약 중국의 군사력이 강했다면 약소국은 중국을 두려워하고 강국도 중국과 친화를 맺고자 할 것이다. 그때 중국이 지지하는 바에 따라 승패가 결정될 것이며, 그런 결정권을 갖춘 후에야 “미병”도 가능해질 것이다.

둘째, 흑자는 공법을 믿고 신뢰하지만, 권력이 대등해야 공법이 있는 것이다. 현재 세계 각국이 교류를 하는데 소국과 대국이 서로 다르고, 서구 국가와 중국이 서로 다르다. 중국은 관세나 통상, 재외국민의 재판 등에 있어서 서구와 평등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그는 공법이란 허망한 거짓말에 불과하며, 중국은 만국공회에도 대등하게 참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법 또한 평등한 권리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고 비판하였다.⁴⁹⁾

장타이엔 역시 “미병”이 훌륭하고 칭송할 만한 일이지만, 미병을 주장하려면 스스로 먼저 생사결정권을 장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생사결정권을 보

48) 唐才常, <弭兵會>, 《砭田危言: 唐才常·宋恕集》(遼寧人民出版社, 1994), 70-73쪽.

49) 張之洞, <弭兵兵>, 《勸學篇》(1898)(上海書局出版社, 2002), 72-73쪽.

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타자가 자신을 죽이지 못하게 강제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서구 각국은 군사력이 서로 대등하여 서구의 국가들 사이에서는 “미병”을 논할 여건이 되지만, 군사력에 있어서 서구에 비할 수 없는 중국에 대해서는 미병을 원치 않는다고 보았다. 특히 그는 현재 중국과 외국 사이에 불화가 발생하면 최후통첩과 동시에 경찰을 파견하여 한 지역을 점령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예로 들며, “미병”은 현재 무기를 동원한 전쟁이 어려워지자 강국이 약소국을 협박하여 토지를 빼앗기 위한 채찍에 불과하다고 비판하였다.⁵⁰⁾

5. 결론

이와 같이 19세기 말 20세기 초 세계평화회의는 인류의 파멸적인 전쟁의 위기 하에서 대두된 전세계적인 운동이자 사상적 조류였다. 그러한 흐름 하에서 서구 국가들은 국제회의를 통한 세계평화의 제도화를 추구하였다. 한편 이러한 조류와 담론이 급속하게 대두되던 시기에 동아시아는 청일전쟁을 계기로 질서가 급속하게 재편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열강의 각축의 중심무대였다.

하지만 세계평화, 만국평화를 표방한 서구 주도의 평화조류는 동아시아 세계를 예외로 두지 않았으며, 헤이그 만국평화회의담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전세계 국가들을 그 담론의 장으로 끌어들였다. 따라서 중국이든 일본이든 다소 입장의 차이가 있기는 했지만, 그 평화담론과 조류에 대해 입장표명을 회피할 수 없었다. 그리고 전례 없는 극단적인 무력충돌과 멸종, 멸국의 위기 하에서, 그러한 국제정세를 변화시킬 수도 있는 세계평화회의를 무조건 무시 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당시 서구가 주도하던 세계평화회의는 이중성을 지니고 있었다. 하

50) 章炳麟著, 徐復注, 《卮言詳注》(上海古籍出版社, 2000), 645-655쪽.

나는 인류사회의 이상으로서의 보편적인 가치를 지니는 이념이었다. 이러한 이념은 당시 소위 “제국주의” 시대에 소수의 강대국에 의한 전지구의 분할 점령으로 “통합”되어 가던 추세와 더불어 세계의 일통이라는 상상을 만들어냈다. 즉 극단적인 폭력을 수반한 세계 일통과 세계평화회의는 무자비한 인류 역사의 간계처럼 보였던 것이다. 캉유웨이를 중심으로 한 중국의 일부 지식인들은 바로 이러한 시각에서 세계평화회의를 평가하고, 이를 자신들의 대동이념으로 통합해 내고자 하였다.

한편, 일각에서는 세계평화회의의 이상적인 외피 속에 잠재되어 있는 서구 중심과 불평등을 인식하고 그 한계를 지적하였다. 세계평화회의의 이중성은 단순히 일본에서 끊임없이 지적한 러시아 차르의 “불순한 의도”만이 아니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세계평화회의와 만국평화회담이 제기되던 전후 시기는 중국이 바로 서구에 의한 분할의 위기가 날로 격화되어 가던 시기였다. 만약 평화회담이 진정한 의미를 지니기 위해서는 중국이 처한 위기문제가 의제화 되고 공정한 방식에 의해서 처리되어야만 했다. 또 서구 국가들처럼 중국과 기타 약소국가들도 대등한 주권을 가지고 그 논의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했다. 그러나 제1차 만국평화회담에서 보여주듯이, 중국은 제3등급의 주권 국가의 자격으로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⁵¹⁾ 의화단의 난 이후 서구열강은 근거 없는 막대한 액수의 배상금을 요구하고, 러시아는 만주에 대한 지배권까지 요구하고 있었다.⁵²⁾ 또 청일전쟁 이후 일본뿐만 아니라 서구국가가 모두 자주 국가의 지위를 인정했던 대한제국은 러일전쟁 이후 일본의 속국으로 전락했는데 이는 바로 만국평화회담이 개최되고 나서 몇 년 후의 일이었다. 즉 “맹약을 한 후 입술의 피도 채 마르기 전”에 타국의 영토와 주권을 침해했음에도 세계평화회의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1907년 제2차 헤이그 만국평화회담에 조선은 초청대상에서 조차 제외되었다.⁵³⁾ 즉 세계평화회의가

51) 英國季理斐, 元和曹會涵輯譯, <弭兵會紀聞>, 《萬國公報》(第225期, 1907), 6쪽.

52) <論滿洲事宜交弭兵會公議>, 《北京新聞匯報》(1901.8), 2990-2992쪽; 《選報》(第二冊, 1901), 26쪽; 《南洋七日報》(第五冊, 1901), 27쪽.

53) 志達, <不平哉萬國平和會>, 《天義》(第4期, 1907), 31-32쪽.

한창 진행되던 시기에도 중국과 동아시아의 위기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 민족과 국가의 주권은 자강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타 민족의 생존과 주권을 부정하는 평화는 강대국의 위선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리고 평화관념 역시 이제 그 언표적인 차원을 넘어 보다 본질적이고 현실적인 의미를 추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다루지 못했지만, 《민보(民報)》 편집시기 장타이옌은 근대사상 속의 억압적 기제를 반성하고, 만물의 평등성에 기반한 공존과 평등, 그리고 그 과정의 정당성에 바탕한 평화에 대해 심도있는 사고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평화론에 대한 천착은 당면한 긴급한 위기라는 현실 앞에서 민족주의, 국가주의의 조류에 의해 밀려나 버리고 말았다.

< 參考文獻 >

- 파지야나 심비르체마, <1907년 헤이그 평화회의의 개최과정과 성격>,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9, 2007.
- 빌헬름 안센 지음, 한상희 옮김,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 5: 평화》, 푸른역사, 2010.
- 임마누엘 칸트 지음, 이한구 옮김, 《영구평화론》, 서광사, 2017.
- James Brown Scott ed., *The Hague Peace Conferences of 1899 and 1907* (1~2), Baltimore: Johns Hopkins Press, 1909.
- James Brown Scott ed., *The proceedings of the Hague Peace Conferences: translation of the official text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20.
- Paul Laity, *The British Peace Movement 1870-1914*, Clarendon Press, 2002.
- Sandi E. Cooper, *Patriotic pacifism: Waging war on war in Europe, 1815-1914*, Oxford University Press, 1991.
- 古城貞吉譯, <弭戰檄>(東京日日報西十月三十日), 《時務報》第四十七冊, 1897年12月.
- 古城貞吉譯, <俄倡弭兵會>, 《昌言報》第五期, 1898.

- 唐才常, <弭兵會>, 《砭旧危言: 唐才常·宋恕集》, 遼寧人民出版社, 1994.
- 東甌陳叫撰, <論西國既設弭兵太平二會宜急先削去公法中之默許法而專力行性法>, 《經世報》第七冊, 1897年9月.
- 縷馨倦史, <球弭兵會議(下)>, 《萬國公報》第六十二冊, 1894.
- 李提摩太, <新政策>(1895), 中國史學會, 《戊戌變法(三)》,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57.
- 林樂知述, 鑄鐵生作, <地球弭兵會議(上)>, 《萬國公報》第六十二冊, 1894.
- 林樂知譯, 任廷旭志, <弭兵會散會情形述畧>, 《萬國公報》第三百三十冊, 1899.
- 林樂知譯, 鑄鐵生稿, <地球弭兵會續紀>, 《萬國公報》第六十一冊, 1894年2月.
- 末廣博士著, 朱獻文譯, <第二回萬國平和會議與關於平和之諸問題>, 《學海: 甲編(文科·法科·政治科·商業科)》第1卷4期, 北京大學留日學生編譯社發行, 1908.
- 文學士有賀長雄, <論萬國弭兵會結菓>, 《亞東時報》第十七號, 1899年11月.
- 美國林樂知譯, 吳江任保羅述, <論捐建哈格弭兵會公斷衙門>, 《萬國公報》第二百零二冊, 1805.
- 寺尾亨, <萬國平和同盟說源流考>, 《清議報》第十二冊, 光緒二十五年(1899), 3月11日.
- 邵之棠輯, 《皇朝經世文統編》, 臺北: 文海出版社有限公司, 民國六十九年.
- 邵之棠輯, 《皇朝經世文統編·卷八十六·經武部十七弭兵》, 一百零七卷, 敷文學堂藏本, 1901.
- 易惠莉, 《西學東漸與中國傳統知識分子—沈毓桂個案研究》, 吉林人民出版社, 1993.
- 英國季理斐譯, 東吳范禕述, <論弭兵會第二次之聚集>, 《萬國公報》第二百八冊, 1806.
- 英國季理斐譯, 元和曹曾涵述, <荷京第二次弭兵會>, 《萬國公報》第二百二十三冊, 1907.
- 英國季理斐, 元和曹曾涵輯譯, <弭兵會紀聞>, 《萬國公報》第225期, 1907.
- 外務省編纂, 《日本外交文書: 海牙萬國平和會議》, 巖南堂書店, 1955.3(3版: 2007)
- 有賀長雄, <萬國平和會議の一成一敗>, 《外交時報》第21卷, 1899.10.10.
- 章炳麟著, 徐復注, 《卮書詳注》, 上海古籍出版社, 2000.
- 張之洞, <非弭兵>, 《勸學篇》(1898), 上海書局出版社, 2002.
- 錢鍾書主編, 《康有為大同論二種》, 三聯書店, 1998.
- 田濤, <晚清知識界的弭兵說>, 《天津師範大學學報》總第196期, 2008年第1期.
- 鑄鐵生, <弭兵會記>, 《萬國公報》第四十八冊, 1893.
- 志達, <不平哉萬國平和會>, 《天義》제4기, 1907.

- 晉安甘韓眠羊甫輯, 楊鳳藻校正, 《皇朝經世文新編續集·卷十四下》二十一卷, 商絳雪齋書局印, 1902.
- 清麥仲華主編, 《皇朝經世文新編·卷十八下民政》二十一卷, 上海大同譯書局刊行, 1898.
- 夏東元編, <盛世危言·弭兵>, 《鄭觀應集》(上冊), 上海人民出版社, 1982.
- 懷寧何熙年, <裁兵私議>, 《時務報》第五十四冊, 1898年3月13日.
- <德願弭兵>, 《萬國公報》第二十七冊, 1891.
- <論滿洲事宜交弭兵會公議>, 《北京新聞匯報》, 1901.8.
- <論弭兵息戰之策>, 《萬國公報》第二冊, 1889年3月(光緒十五年二月).
- <萬國平和會議>, 《經世報》第六冊, 1897年9月
- <萬國平和會議>, 《蘇報》, 1897年10月.
- <萬國平和會議>, 《奏中西局匯報》, 1897.
- <萬國平和會議>, 《集成報》第二十四冊, 1897年12月.
- <萬國平和會議>, 《萃報》第十四期, 1897.
- <弭兵良法>, 《萬國公報》第五十七冊, 1893.
- <弭兵有效>, 《萬國公報》第九十二冊, 1896.
- <弭兵虛願>, 《萬國公報》第十九冊, 1890年8月
- <弭兵會不可深信論>, 《昌言報》第五冊, 1898年10月1日.
- <弭兵會日記>, 《萬國公報》第二百六十六冊, 1899.
- <弭兵會集>, 《萬國公報》第二十一冊, 1890.

< Abstract >

A Study on Peace Discourse in China at the Turn of the 20th Century
— Focused on “World Peace Conference”

Cha, Taegeun

At the end of the nineteenth century, the world peace movement was developed around the world under the crisis of the devastating war. The World Peace Conference, including the First and Second Hague Peace Conference in

1899 and 1907. attracted political and ideological attention around world.

The information and knowledge about the Peace Conference in China was mainly through the *Wan Kwoh Kung Pao* published by Western missionaries and Japanese scholars of international law. It's two sources of knowledge were introduced and evaluated from different perspectives on the World Peace Conference.

In the conflict of ideal of world peace and partition of state, Chinese intellectuals began to think deeply about peace conference and peace issue. Kang You-wei regarded peace as a universal human ideal and appreciated the change of the world as a process of development toward the Great unification of world and set a high value on the World Peace Conference. On the contrary, Zhang Zhi-dong and Zhang tai-yan regarded world peace movement as Westerncentrism based on the unequal sovereignty of world peoples in the world peace conference and international law, and the peace of China could only be secured through strenuous efforts. Thus, at the end of the nineteenth century, the universalist ideology and nationalism which prioritized the sovereignty of the nation and the state was in confrontation with each other over the world peace issues. In this process, They could not addressed deeply the issue of peace and equality of human society based on equality of sovereignty and fair process and method.

Key Words: World Peace movement, Hague Peace Conference, "DATONG" Thought, Nationalism, Wan Kwoh Kung Pao, Peace, Partition of China, Christianity,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8. 7. 31	2018. 8. 10	2018. 8. 16	2018. 8. 27	2018. 9. 30